

10/15/23

설교 제목: 상전과 종 간의 실천적인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6 장 5-9 절

(엡 6: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엡 6: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엡 6: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엡 6: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엡 6: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지키며 살아야 하는 실천적인 삶의 원칙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어 상전과 종 간에 지키며 살아야 할 실천적인 삶의 원칙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결혼이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도이기에 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전과 종 간의 관계는 당시 노예 제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내지 허용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아닐 뿐더러 세상 사람들도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없애버린 제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악한 제도로 치부하고, 존재해서는 안될 제도이니 당장 없애라고 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종과 상전 간에 지키며 살아야 할 원칙들을 언급하다니요?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상전들에게 당장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종과 상전 간에 지키며 살아야 할 원칙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인정하여 없애버린 이 제도를 옹호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지금 같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이것은 종들이 성전을 떠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이 종들을 해방시킨다고 종들에게 당장 나가 독립해 살라고 해도 아마 상당수의 종들은 독립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냥 상전의 종으로 남아 있고자 했을 것입니다.

상전의 종으로 남아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연유로 당시 상전과 종의 관계는 일방적인 학대와 착취의 관계라기 보다는 오늘날의 노사 관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이해 집단 관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형태의 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예 제도를 허용한 것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악으로 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노예 제도가 악하다기 보다는 그 제도를 이용해 악을 행한 사람들이 악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 문제로 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내부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악은 근본적으로 내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같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노예 삼는 것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대하는 것을 금하였고 상해에 대한 보상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출 21: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21: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출 21: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엡 6: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순종하되 '두려워하고 떨며'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두려워하다'는 '무서워 피하고 싫어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권세나 환경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딤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들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쓰여진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며 극한적인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굴려 자신에게 유리하겠다 싶은 쪽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을 향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엡 6: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치를 보아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이 압삽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골로새서 3:22 절과 일맥상통합니다.

(골 3: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야만 하겠지만 특별히 성도는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감탄고토, 동식서숙 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올곧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상전을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합니다.

(엡 6: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벧전 5: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성도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 육체의 상전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대로 상급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엡 6: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대접을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 10: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 10: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지껏 종들을 대상으로 권면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조를 바꾸어 종과 자유인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냐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대로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상전들을 향해 종에게 명했던 것과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엡 6: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이라

'이와 같이 하고'는 종들에게 행하라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행하라는 말로써 종과 상전이 상호
관계에서 동일한 행동 기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악용해서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상전들이 종들에게 이와같이 행하여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 종들과 너희의 상전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과 상전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외적 요인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결코 외적 요인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상전들이 행여 자신들이 세상에서 획득한 사회적인 지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특별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까 우려해 이렇게 못박아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힘으로, 또는 어떤 외적인 것들로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과 함께 로마에 대항하거나 불합리한 사회 제도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되었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가 이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신했습니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쳤습니니다.

세상이 핍박하면 기꺼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한 후 바로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가르쳤습니다.

종에게 자유를 위해 투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7: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고전 7: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고전 7: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전 7: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전 7: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이나 상전이나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대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값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값이고 누가 을이냐를 따져 행동하기 보다는 그에 앞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서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한 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권위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 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가진 권력과 힘을 사용해 협박하고.....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모르실 리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이기에 당신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